

시민이 건강하고 '내일이 빛나는 광주 체육' 구축 총력

2024 광주체육 결산

광주시체육회는 올 한해 '내일이 빛나는 광주체육'이라는 슬로건으로 체육인들의 지혜를 모아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임직원들이 하나가 돼 '활력이 넘치는 체육문화, 평생체육으로 행복한 광주, 시민과 공감하는 광주체육'을 목표로 시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생활·전문체육의 균형 발전과 안전하게 관리된 체육시설물을 개방하는 등 더 나은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해 스포츠 건강 도시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펼쳤다. 2024 광주체육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편집자주〉

국비 공모 25억 2천여만원 성과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안전재단에서 공모한 각종 국비 사업에 선정돼 시민들의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했다.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예산 5억6천만원을 지원받아 8개 클럽 27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사업(3억6천만원), 생활체육동호회 리그(1억 2천만원), 행복나눔스포츠클럽(1억 3백만원) 등 총 14개 사업 25억2천만원을 확보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고른 발전을 도모했다.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 눈길

광주시체육회는 남녀노소 시민들이 언제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장학금 수여식 단체사진

어디서나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광장, 생활체육동호인리그, 해달맞이 생활체육 교실, 어르신체육활동지원, 시민체육대회개최 등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별 누적 이용자 수는 68만8천여 명이었고, 특히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건강도시 광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내외 우수성적...광주 위상 제고

지난 10월 경남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선수단은 전국체전 출전 최초로 49개 전 종목에 참가하며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육상에서 고승환(광주시청)이 4관왕, 모일환(광주시청)과 체조 문건영(광주체고3)이 3관왕을 차지했다. 근대5종 전용태(광주광역시청), 양궁 오예진(광주여대)과 역도 손현호(국군체육부대), 육상 김국영, 김태호, 이재성(이상 광주시청)이 2관왕을 차지하는 등 15명의 다관왕이 나왔다.

유전자 지원 등 스포츠과학 선도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스포츠과학연구원은 전국 최초로 스포츠 유전자(DNA) 지원사업을 2년째 이어가고 있다. 광주체중 신입생과 신광중 등 9개 기관(26개 종목, 150명)에 대한 검체 채취·분석을 실시했다. 광주시스포츠과학센터 체력측정 데이터와 스포츠 유전자 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스포츠과학 지원 고도화로 스포츠 영재발굴 및 개인별·종목별 전문훈련 등 선수들의 과학적 전문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에 기여했다.

안전 최우선...체육시설물관리만전

광주시체육회는 염주체육관, 빛고을체육



시민 화합 한마당축제로 펼쳐진 제36회 광주시민체육대회 개회식 단체사진.

〈광주시체육회 제공〉

관, 무등야구장 등 21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 누적 사용 인원이 67만여 명에 이르며 광주시민의 체육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족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과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 현재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운동장 개방율이 97.7%에 육박하고 있다. 학교 체육시설의 전면 개방은 시민들의 체육활동이 활발해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스포츠교류 활성화, 홍보대사 자임

지난 6월 광주에서 열린 광주-대구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가 5개 종목 3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상호 우의를 다졌다. 달빛동맹 교류대회는 2013년 광주와 대구시가 체결한 달빛동맹의 공동협력사업 중 스포츠 분야도 포함되면서 시작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2033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성사되도록 역량을 합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17회 한·중 청소년스포츠 교류는 3종목

160여 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광주와 충칭시에서 각각 개최됐다. 합동훈련과 연습, 공식 경기를 진행했고 우호 관계 강화를 통한 스포츠 교류가 광주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투명한 선진행정으로 신뢰도 제고

민선 7기에 들어 사무처 조직 쇄신과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관을 위촉했다. 또한 행정사무원이 부재로 있는 종목단체를 위한 통합사무실을 운영해 종목단체와 전무이사들의 화합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라 종목단체 및 5개구 체육회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집행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보다 나은 선진행정을 구축해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 체육문화를 활성화하겠다"며 "스포츠와 함께 건강한 시민이 행복하고 밝은 '내일이 빛나는 광주체육'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올 최고 히트맨' 김도영, 역대급 '잭팟' 쏘나

올 1억원에서 최소 300% ↑ 3억원 이상 기대 '4년차 최고' 이정후 기록도 넘어서나 관심사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슈퍼스타' 김도영이 내년 연봉 협상에서 역대급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올 시즌 압도적인 활약으로 숱한 이정표를 세운 그가 KBO 리그 4년 차 최고 연봉 기록마저 갈아치울지 야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프로야구 2024 리그에서는 받는 연봉에 비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았다. 이른바 '가성비' 선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그 중에서도 KIA의 김도영은 '가성비'를 넘어 KBO 리그 역사를 새로 쓰며 2025년 연봉 협상에서 '잭팟'을 예고하고 있다.

2022년 신인으로 3천만원에 프로 생활을 시작한 김도영은 2023년 5천만원, 2024년 1억원으로 연봉이 인상됐지만, 그의 활약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올 시즌 신인왕 김택연이 300% 넘는 연봉 인상을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김도영의 인상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영은 2025년 연봉 협상에서 최소 300% 이상 인상된 3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의 급상승한 가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일각에서는 역대 4년 차 최고 연봉인 이정후의 3억9천만원을 넘어 5억원

이상의 계약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올 시즌 김도영은 그야말로 프로야구 최고의 '히트 상품'이다. 141경기에서 장타율(0.647)과 득점(143) 부문 타격 2관왕을 차지하며 리그 유일의 '다관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특히 그가 세운 KBO 역대급 기록들은 정규리그 MVP 수상에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월간 최초 '10홈런-10도루'를 비롯해 호타준족의 상징 '20홈런-20도루', 역대 2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 KBO 최연소·최소경기 '30홈런-30도루', 21세 이하 최연소 최다 홈런, 최연소 100타점-100득점, 단일 시즌 최다 득점 기록 등 엄청난 신기록은 이번 리그를 김도영의 무대로 바꿔놨다.

이러한 업적에 힘입어 각종 시상식도 쏟아졌다. 은퇴선수협회 '최고의 선수상'을 비롯해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최고 타자상', 'KBO리그 최우수 선수상(MVP)', '리얼 클러브 어워드 올해의 선수상'과 Fan's Choice 플레이 어상, '2024 동아스포츠대상', '2024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 수상' 등을 휩쓸며, 각종 시상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이는 김도영이 단순히 '가성비'를 논하는 수준을 넘어, 리그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김도영은 이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화



올 시즌 다양한 기록을 영연하며 프로야구 최고의 별로 인정받은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큰 영향을 미쳤다. 그의 활약 덕분에 팀은 통산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달성했고, 팬들의 관심과 구단 수익 또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슈퍼스타' 한 명이 구단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KIA는 김도영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 그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영은 이미 KBO 리그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화

려한 플레이는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야구 팬덤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그는 앞으로 KBO 리그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다.

2025년 연봉 협상에서 그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 그리고 앞으로 KBO 리그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주홍철 기자



2024 KBF 바둑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전남바둑선수단 <전남체육회 제공>

전남, 2024 KBF 바둑리그 준우승

챔피언결정전서 복병 부산이붕장학회에 석패

2024 KBF 바둑리그 정규리그 우승 팀 전남바둑이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이붕장학회에 석패하며 통합우승을 다음 시즌으로 미뤘다.

전남바둑은 지난 28일 경기도 판교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 KBF 바둑리그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이붕장학회에 0대2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정규리그 9승1패로 2018년 이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전남바둑은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2-3으로 패한 후 2차전에서도 1대4로 패하며 우승을 다음 시즌으로 미뤘다.

신철호 전남바둑 감독은 "올 한 해 우리 선수들은 끈끈한 팀워크로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챔피언결정전에서 부산이붕장학회에 0대2로 패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만족할 수 있도록 선수들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절대 강자' 신진서, 5년 연속 바둑 MVP

한국 바둑의 절대 강자 신진서 9단이 5년 연속 바둑의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신진서는 지난 28일 열린 2024 바둑 대상에서 기자단 득표율 53.33%, 팬 득표율 79.76%를 획득해 합계 61.28%로 MVP의 영예를 안았다.

2018년 처음 바둑 MVP로 뽑혔던 신진서는 2020년부터 5년 연속 대상을 받

는 등 통산 6번째 최고의 프로기사로 선정됐다.

이날 신진서는 남자다승상(6승 1무 1패)과 남자 승률상(8승 2패)에 이어 팬들이 뽑는 인기상까지 휩쓸었다. 남녀 우수기사는 박정환 9단과 최정 9단이 각각 받았다.

시니어기사는 유창혁 9단이 받았

/연합뉴스